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 평협회장

집콕 생활 안에서도 소확행 체험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앓은 것도 많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앓은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기 마련인 듯합니다. 요즘 청명한 가을 하늘도 코로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 창궐이 심했던 지난 2월 집콕 시간을 보낼 때를 되돌아보면 또 나름의 은총과 감사의 시간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가족들 나름대로 바빠서 식탁에 함께 모여 식사하거나 가족 미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콕 생활이 이어지면서 평화방송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미사와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일상이 멈춘 상태인지라 식사 때가 되면 자연스레 식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몹시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정지된 상황에 문득 가족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용기를 내어 요리에 도전해보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가장 만만해 보이는 '콩나물국밥'을 끓이기로 하고, 전날 유튜브를 보며 레시피를 적어 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우자 몰래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자재를 찾아보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무작정 마트에 가서 콩나물과 나머지 식자재를 모두 준비해 정성껏 뚝배기에 끓였습니다.

식탁에 올려놓고 짜잔! 가족들을 불러 시식을 한순간 “오~우 아빠 짱!” 가족들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와 유쾌한 아침 식사가 되었고, 일일 셰프의 뿌듯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번 자신감을 얻은 후, 두 번째로 시도한 요리가 ‘목살 김치 된장찌개’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족들 몰래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하려고 하다 보니 냉장고에 있는 식자재를 일일이 찾을 수 없어서,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를 통째로 사는 바람에 배우자의 쓴소리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

니다.

맛있게 먹는 가족들을 보면서 왠지 제가 큰일을 해낸 것처럼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나도 요리를 할 수 있구나’하는 새로운 재미와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거기에 더 발전해 ‘오이소박이’와 ‘물김치’까지 도전을 해보게 되었지요. 나중에는 과감하게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서 제가 만든 요리로 음식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 조절이 잘 안 되어 문제였습니다. 오래전 배우자 생일에 좋아하는 ‘낙지 미역국’을 끓였는데, 아뿔사! 기름에 튀은 미역이 물에 붙어 끓여 놓고 보니 한 들통이나 되어 보름 동안 먹었던 악몽이 ‘목살 김치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다시금 재연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때 배꼽을 잡고 쓴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저의 작은 희생, 깜짝 이벤트가 가족들에게 사랑의 백신이 되어주고, 답답한 집콕 생활 안에서도 소확행과 가족들 안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뭉치면 남다른 행복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체험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